

사서 없는 도서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공도서관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재

단을 설립하며, 도서관 운영방식을 놓고 “직영이나, 위탁이나”로 고민하고 있다. 행복한도서관재단이 출범하는 등 도서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연간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점검과 추진전략 수정 등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기 위한 업무로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은 존재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특히 시·군 공공도서관 간 경쟁과 평가구도 속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내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정보소통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개관되고 있다. 비약적으로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서직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특히 최근에는 사서 없는 도서관까지 생겨나고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이 이대로 좋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도서관인들이 다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도서관에 사서가 없다는 것은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서관 사서를 꿈꾸며 대학에서 많은 예비사서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 없는 도서관이 생겨나다니, 후배들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든다. 사서 없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구책으로 이러한 운영모형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인 스스로가 이러한 운영체제를 지원하거나, 우수모델이 되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법」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3명의 사서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적과 장서 초과분에 따라 사서직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준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들이 필요한 때이다.

첫째, 중앙차원의 계도가 필요하다.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1관당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이 평가지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이 평가지표를 강화해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단체장 권고를 통해 지역편차 심화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서직원이 법적 기준의 평균 20%에 그치고 있다.



글 | 정 문 택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안양시립석수도서관 관장
mt0119@korea.kr

필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안양시는 약 15% 정도이다. 이러한 지역편차를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앙차원의 계도와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 인정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도서관으로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과 자료, 사서직원 수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도서관으로서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여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도서관을 늘리기보다 올바른 도서관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민과 관이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총정원제도에 묶여 신규 사서직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꾸준히 사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최소의 사서직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함께 확보하여 인력풀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규 사서직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서관을 육성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사서 없는 도서관이 생겨나는 현상에 대해 우리 사서들도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문적이지 않게 보여짐으로써 비전문가가 운영해도 된다는 인식에 책임져야 한다. 사서는 지식정보와 시민을 연결시키는 정보중개자이다. 또한 독서교육의 매개체이며 홍보기획자이다. 그리고 지역의 독서문화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결정권자이며 연출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독서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임을 입증받을 필요가 있다. 이번 프랑스의 외규장각도서를 우리나라에 반환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크립도서관 사서들이 반대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타국의 문화라도 중요히 여기고 계승하려는 전문가 인식과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사서들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각자 개성과 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을 지키는 사서로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는 한 목소리로 사서직의 브랜드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할 때다. 앞으로는 더 이상 '사서 없는 도서관'이 생겨나지 않도록 전국 도서관이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서 모두가 "도서관이 국가의 미래다."라고 외치는 합성소리가 전국에서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김민

“ 우리나라 사서들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각자 개성과 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